고문서·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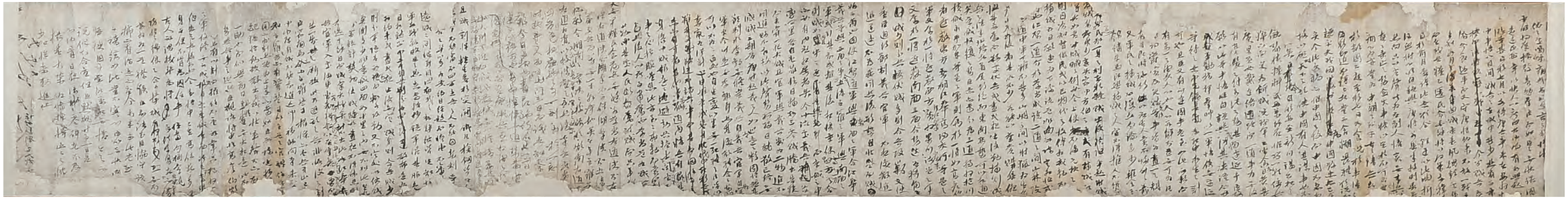
古文書 · 典籍

ANCIENT DOCUMENTS

116

유성룡 필 진시무차 초고
柳成龍筆陳時務剳草稿
Preliminary Draft for Appeal Concerning Unsettled State Affairs of Urgency

류성룡(柳成龍, 1542 ~ 1607) | 조선 1592년 | 세로 39.2 가로 311.8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 111호
Ryu Seong-ryong (柳成龍, 1542 - 1607) | Joseon Dynasty (1592) | L 39.2 W 311.8
Local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1 of Busan Metropolitan City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 발발 당시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 ~ 1607이 그해 11월 평안도 정주定州에서 나라의 시급한 정무政務에 대하여 올린 차자箚子의 초고이다. 내용은 국가의 위난危難을 맞아 민심民心의 규합책, 강원도 산척山尺을 복병으로 활용한 왜적 공격책, 한양漢陽 수복과 호남의 곡식을 활용한 영남 백성의 구제책을 비롯하여 변방의 보고를 즉시 처리해 시사時事에 만전을 기하고 게릴라전을 적극 활용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초안은 1633년인조 11에 간행된 『西厓集』에 그 전문全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창석蒼石 이준李埈의 「서애류선생행장西厓柳先生行狀」과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찬撰한 「서애류선생연보西厓柳先生年譜」 등에도 약술된 내용과 함께 상달上達시기와 작성 장소 등이 전해지고 있으나, 초고로서 필삭筆削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있고 내용상 약간의 증산增刪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으로 116행의 반초서로 쓰여 있으며, 규격은 세로 39.2cm, 가로 311.8cm로 가로로 9장의 한지를 연접시킨 권자卷子형태이다. 연접된 각장의 길이는 첫 장 37.4cm, 둘째 장 48.1cm, 셋째 장 48.7cm, 넷째 장 47.5cm, 다섯째 장 12.0cm 여섯째 장 16.8cm, 일곱째 장 30.7cm, 여덟째 장 19.3cm, 아홉째 장 41.3cm이다. 이중 첫 장은 앞부분이 1행 이상 잘려 나갔으며 아홉째 장은 끝부분의 배면背面 글씨가 잘려 나가 실제보다 줄어들었고, 한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연접된 부분 위로 행필行筆의 흔적이 겹쳐져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2장은 길이가 다른 장들에 비해 좁고 3cm 전후의 결승 간격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질에 전후의 묵적과 다르게 갈필渴筆로 되어 있어 가필보정加筆補整에 따라 다시 써 이은 것으로 보인다.

A preliminary draft for an appeal submitted by Ryu Seong-ryong (pen name: Seoae; 1542 - 1607) from Jeongju, Pyeongan-do Province, in the 11th lunar month of the 25th year of King Seonjo's reign1592 at the outset of the Japanese invasion led by Toyotomi Hideyoshi, concerning unsettled state affairs of urgency.

117

정탁 치사상소 초
鄭琢致仕上疏草

Preliminary Draft of Jeong Tak's Appeal to the King for Permission to Resign

정탁(鄭琢, 1526 ~ 1605)
조선 1595년 | 세로 53.0 가로 141.0
Jeong Tak (鄭琢, 1526 - 1605)
Joseon Dynasty (1595) | L 53.0 W 141.0

1595년선조 28 정탁鄭琢, 1526 ~ 1605이 우의정右議政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며 올린 사직辭職 상소上疏의 초고草稿이다. 정탁의 자字는 자정子精, 호號는 약포藥圃이며,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경사經史 · 천문天文 · 지리地理 · 상수象數 · 병법兵法 등 다방면에 능통하였다. 1558년 명종 13 식년문과에 급제, 교서관정자 · 예조정랑 · 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1574년선조 7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도승지 · 예조참의 · 강원도관찰사 · 한성부판윤 · 예조판서 · 병조판서 · 형조판서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좌찬성으로 왕을 호종, 영변寧邊에 이르러 왕자이사王子貳師로서 세자를 따라 이천으로 갔으며, 이듬해에는 영위사迎慰使로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을 영접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 · 곽재우郭再祐 · 김덕령金德齡 등을 천거하였으며, 이순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극력 신구伸救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예천 도정서원道正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약포집藥圃集』 ·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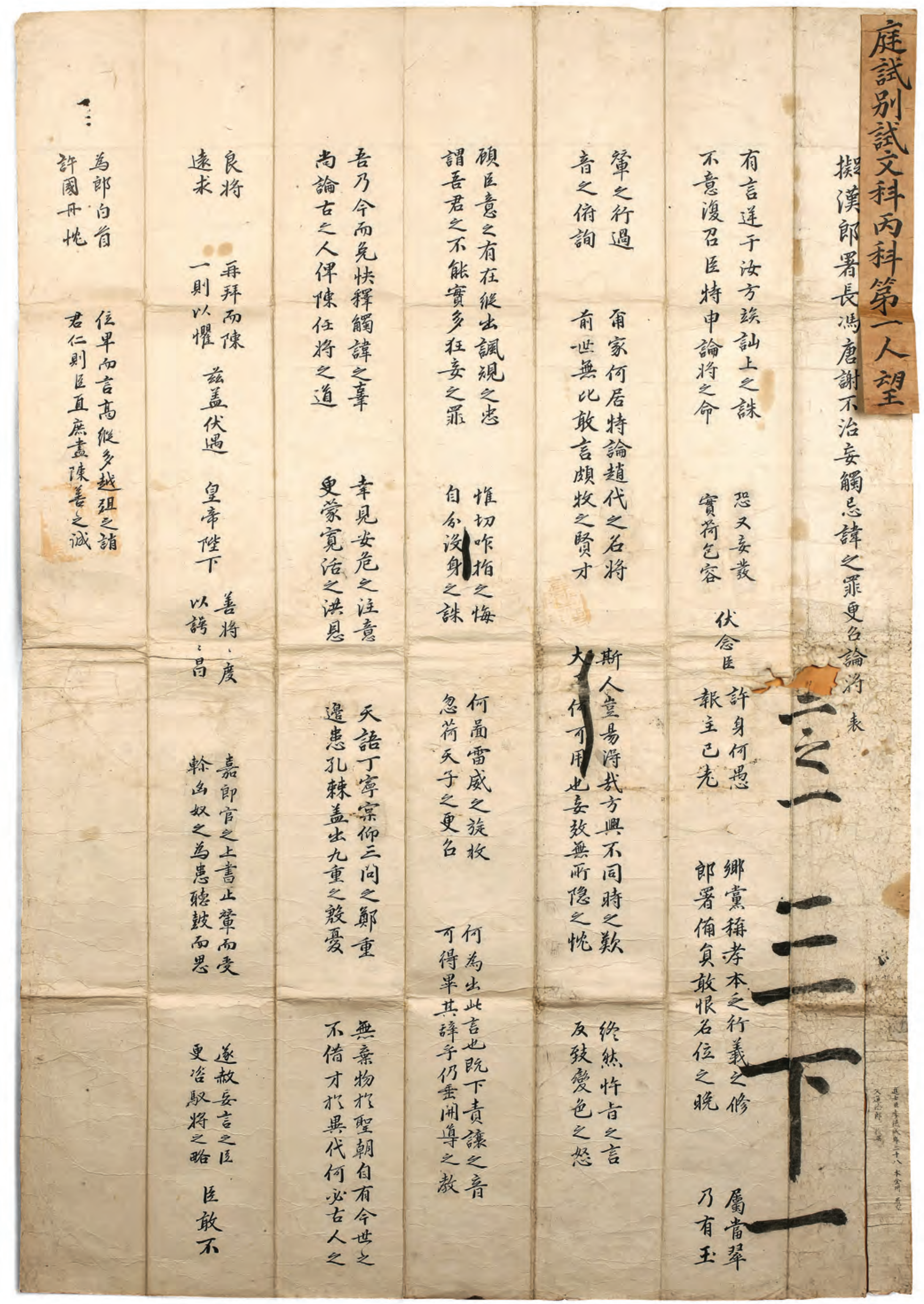
A preliminary draft composed by Jeong Tak in 1592 (28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of his appeal to the king for permission to resign as Third State Councilor.

118

이덕성 시권
李德成試卷

Examination Papers of Yi Deok-seong

이덕성(李德成, 1655 ~ 1704) | 조선 1682년 | 세로 126.5 가로 87.5 | 보물 제 1501호
Yi Deok-seong (李德成, 1655 - 1704) | Joseon Dynasty (1682) | L 126.5 W 87.5 | Treasure No. 1501



이덕성李德成은 조선 숙종肅宗 때의 문신으로 자字는 득보得甫이며, 호號는 반곡盤谷이다. 정종대왕正宗大王의 열 번째 왕자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8대손으로, 1677년숙종 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관리로 등용되었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시작으로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 병조정랑兵曹正郎 · 동래부사東萊府使 · 해주목사海州牧使 · 병조참의兵曹參議 ·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 충청도관찰사忠清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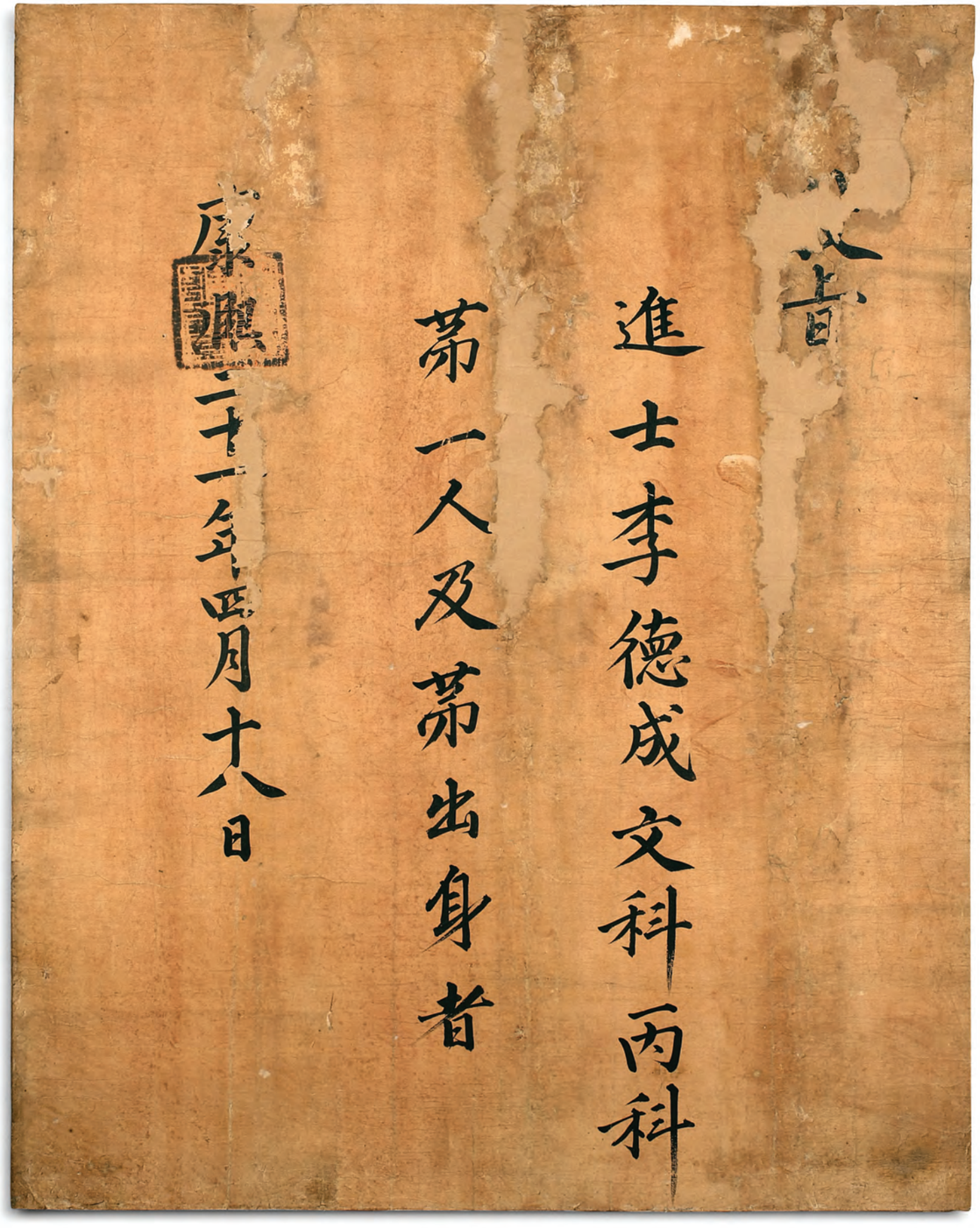
이 시권試券은 이덕성이 1682년에 정시별시庭試別試 문과文科 병과丙科 제1인으로 급제할 당시의 것이다. 시제는 "한나라 중랑서장 풍당이 망령되이 기휘를 범한 죄를 다스리지 않고 다시 불러 장수를 의논한 것을 사례한다擬漢郎署長馮唐謝不治妄觸忌諱之罪更召論將"란 제하의 표表이다.

Joseon Dynasty examination papers composed by Yi Deok-seong during the final stage of the special state examination for literary civil service held in the inner courtyard of the main palace in 1682 (8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at qualified him to pass with the highest score among the third tier of successful candidates.

119

이덕성 홍패
李德成紅牌
Red Certificate Issued to Yi Deok-seong

이덕성(李德成, 1655 ~ 1704) | 조선 1682년 | 세로 99.6 가로 79.0 | 보물 제 1501호
Yi Deok-seong (李德成, 1655 - 1704) | Joseon Dynasty (1682) | L 99.6 W 79.0 | Treasure No. 1501



이덕성李德成이 1682년숙종 8에 정시별시庭試別試 문과文科 병과丙科 제1인으로 급제하고 받은 합격증合格證이다. 대과大科인 문과의 합격자는 총 33명으로 성적순에 따라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을 선발하였다. 이덕성은 이 중 병과 제1인이었으므로 총합격자 33명 중 11등으로 합격하였다.

Certificate confirming that Yi Deok-seong passed the final stage of the special state examination for civil service held in the inner courtyard of the main palace in 1682 (8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with the highest score among the third tier of successful candidates.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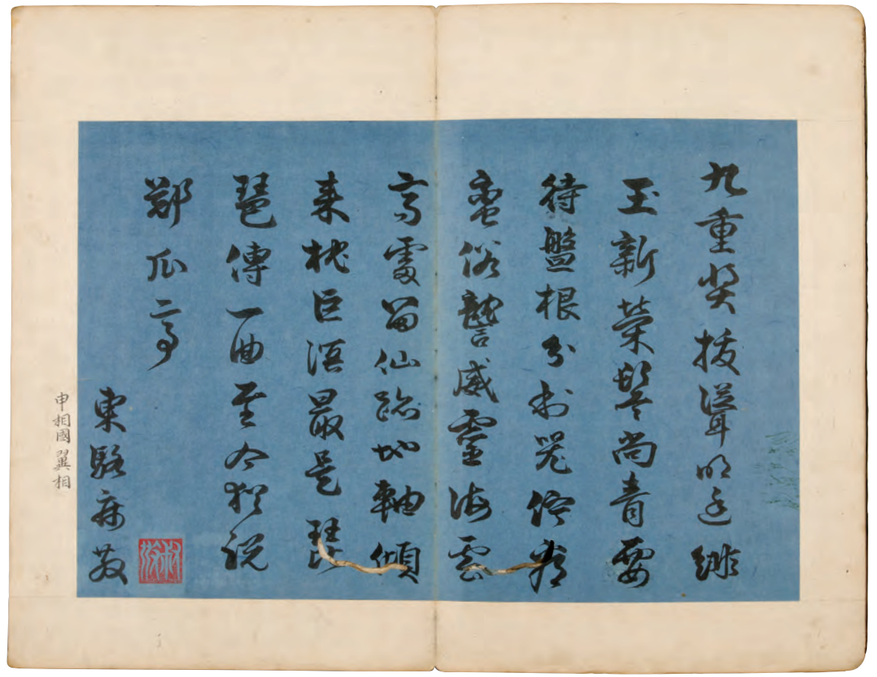
봉래별장첩
蓬萊別章帖
Album of Farewell Poetry for Yi Deok-seong

남용익 등 51인 | 조선 1688년 | 세로 41.0 가로 26.5
Nam Yong-ik and 50 others | Joseon Dynasty (1688) | L 41.0 W 26.5

1688년숙종 14 1월 초 이덕성이 동래부사東萊府使로 부임할 때 친우親友 47명과 조카 4명에게서 받은 송별시送別詩를 모은 첩帖이다. 건乾과 곤坤 2첩으로 되어 있는데, 건첩에는 남용익南龍翊, 유상운柳尙運, 신익상申翼相, 이지익李之翼, 홍만용洪萬容, 유창兪瑒, 유헌兪櫶, 신완申玩, 윤이도尹以道, 이현석李玄錫, 송광연宋光淵, 김창협金昌協, 서종태徐宗泰, 강현姜鉉, 심평沈枰, 홍수주洪受疇, 남치훈南致熏, 서문유徐文裕, 원성유元聖兪, 이현기李玄紀, 이삼석李三錫, 심권沈權, 유상재柳尙載, 김홍복金洪福, 윤덕준尹德駿, 박태순朴泰淳, 심계량沈季良 등 27명의 송별시가 실려 있다. 그리고 곤첩에는 이진안李鎭安, 이정겸李廷謙, 송상기宋相琦, 김연金演, 유신일兪信一, 서종헌徐宗憲, 조기수趙祺壽, 유성운柳成運, 홍우익洪禹翼, 이동암李東馣, 정후주鄭後周, 한세보韓世輔, 정휘주鄭徽周, □세량□世良, 조유수趙裕壽, 권첨權詹, 이하조李賀朝, 임사원任士元, 조정륜趙正倫, 조태수趙泰壽와 조카 송징오宋徵五, 이진양李眞養, 종질 이진망李眞望, 당질 이진검李眞儉 등 24명의 송별시가 실려 있다.

A collection of farewell poetry addressed to Yi Deok-seong when he started his post as Governor of Dongnae-bu (present-day Busan) in the 1st lunar month of the 1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1688), by forty-seven friends and four nephews. The two volumes are titled "乾 (heaven)" and "坤 (earth)."

오언율시五言律詩 남용익(南龍翼, 1628 ~ 1692)



칠언율시七言律詩 신익상(申翼相, 1634 ~ 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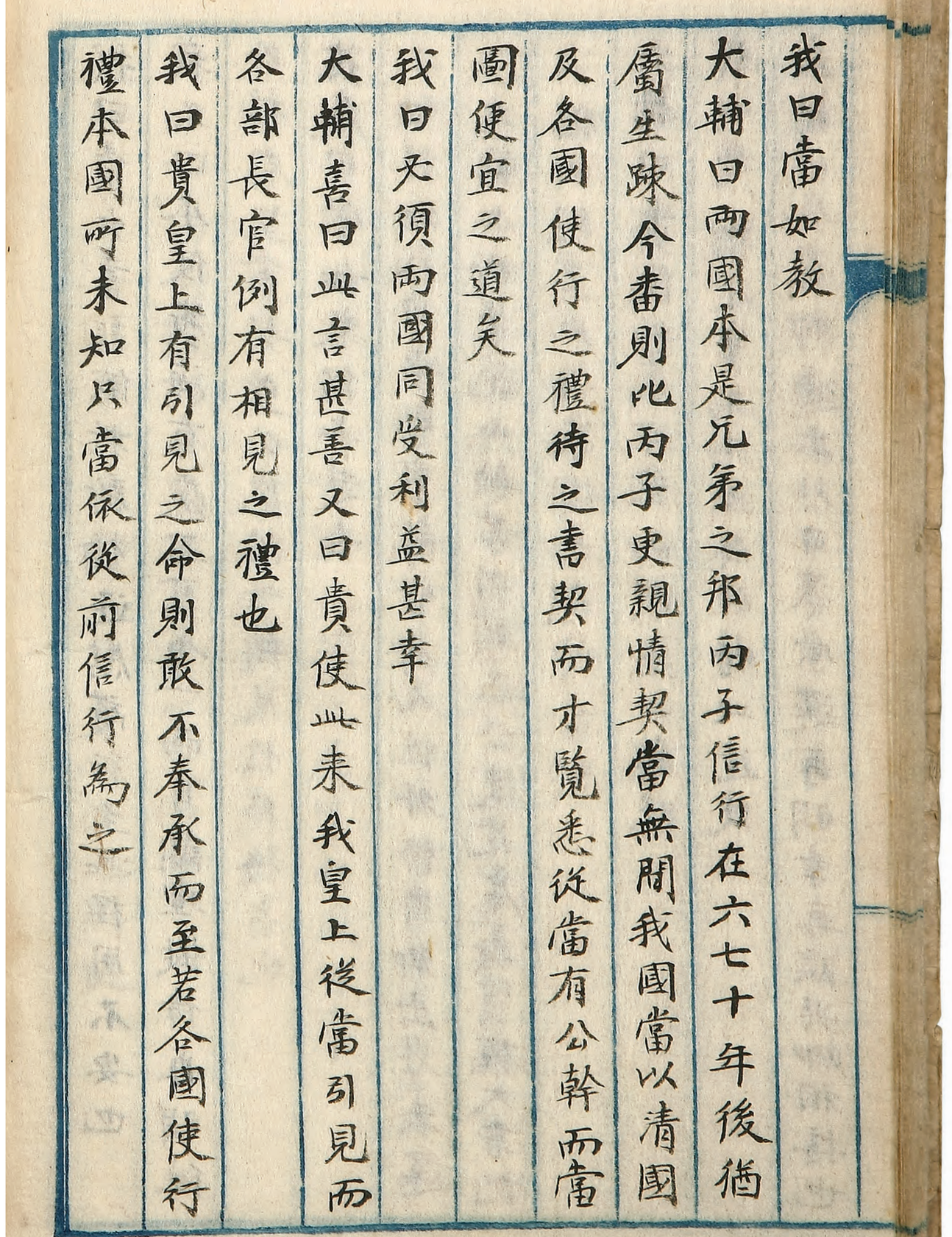
121

동도일사
東渡日史
Journal of a Village Clerk's Travel to the East

박상식(朴祥植, 1845 ~ 1882) | 조선 1880년 | 세로 24.0 가로 15.6
Bark Sang-sik (朴祥植, 1845 - 1882) | Joseon Dynasty (1880) | L 24.0 W 15.6

1880년고종 17 제2차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金弘集 일행의 일원인 박상식朴祥植, 1845 ~ 1882의 사행일기使行日記이다. 박상식은 6대에 걸쳐 동래부東萊府의 무임武任과 이임吏任을 배출한 향리집안의 사람으로, 향서기鄕書記로 선발되어 제 2차 수신사행에 참여하였다. 일기는 크게 1880년 6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일기, 정사正使 김홍집金弘集이 일본 외무성外務省 관료와 주고받은 문답, 수신사 관련 공문公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기에는 사행 전 기간 동안의 일정, 일본 및 청국과의 접촉, 조선과 일본간 현안을 둘러싼 교섭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2차 수신사의 파견목적, 사행단의 일본에 대한 태도, 정사 김홍집의 활동상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중앙 관료가 아닌 동래부東萊府 향리 출신의 시선으로 본 일본의 근대 풍경과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The journal of village clerk Bark Sang-sik (1845 - 1882) on his journey as part of the second Korean delegation to Japan led by envoy Kim Hong-jip in 1880 (17th year of King Gojong's reign), which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chedule for the entire mission, contacts made with Japan and with the Qing Dynasty, as well as negotiations concerning pending issues between Joseon and Japan.


我曰當如教
大輔曰兩國本是兄弟之邦丙子信行在六七十年後猶
屬生疎今番則比丙子更親情契當無間我國當以清國
及各國使行之禮待之書契而才覽悉從當有公幹而當
圖便宜之道矣
我曰不須兩國同受利益甚幸
大輔喜曰此言甚善又曰貴使此來我皇上從當引見而
各部長官例有相見之禮也
我曰貴皇上有引見之命則敢不奉承而至若各國使行
禮本國所未知只當依從前信行為之

122

동행일록 · 해은일록
東行日錄 · 海隱日錄
Journals of Haeeun's Travels to the East

민건호(閔建鎬, 1843 ~ ?) | 조선 1881, 1883 ~ 1914년 | 세로 18.9 ~ 23.8 가로 18.4 ~ 22.1
Min Geon-ho (閔建鎬, 1843 - ?) | Joseon Dynasty (1881, 1883 - 1914) | L 18.9 - 23.8 W 18.4 - 22.1

다대진첨사多大鎭僉使를 지낸 해은海隱 민건호閔建鎬, 1843 ~ ?가 1881년고종 18, 1883년고종 20 ~ 1914년까지 각각 기록한 일기이다. 민건호는 1453년단종 1에 김종서金宗瑞 · 황보인皇甫仁과 더불어 사절死節한 충정공忠貞公 민신閔伸의 후손으로 전라도 해남海南 사람이다. 1870년고종 7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881년 봄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선정된 승지承旨 이헌영의 수행원이 되어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때 남긴 일기가 『동행일록東行日錄』이다.
이 일기에는 1881년 2월 28일양력 3월 27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일본 시찰을 마치고 8월 12일양력 10월 4일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본파견 중 방문한 제지국製紙局 · 조폐국造幣局 · 포병공창砲兵工廠 · 해관海關 · 사범학교師範學校 등에 대한 내용, 일본의 과학기술 및 교육발전을 접한 뒤 느낀 문명개화文明開化 등에 대한 소감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동행일록』이후 한 동안 일기를 기록하지 않았던 민건호는 1883년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해 1914년까지 31년에 걸친 방대한 일기를 남겼는데, 이것이 『해은일록海隱日錄』이다. 이 일기는 그가 일본 파견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부산해관釜山海關 설치에 관여한 내용, 부산에서의 공무公務를 마치고 고향 해남海南으로 돌아가 겪은 크고 작은 일들을 포함하고 있어 근대 개항사는 물론 생활사 연구에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Journals kept by Min Geon-ho (pen name: Haeeun) on his travels to Japan in 1881 and from 1883 to 1914. Containing records not only of the delegation to Japan, often referred to as the Gentlemen's Sightseeing Group, and the installation of a maritime customs office in Busan, but also of details of early modern life, both titles are important materials in studying the modern history of individual lives, the opening of Korean ports to foreign trad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123

다대진각방중기책
多大鎭各房重記冊

Records on Local Ministerial Offices of Dadaejin Garrison

조선 1893년 | 세로 46.6 가로 31.0
Joseon Dynasty (1893) | L 46.6 W 31.0

다대진첨사多大鎭僉使 박기종朴琪淙이 도임到任 직후인 1893년고종 30 7월에 전임 첨사 민건호閔建鎬로부터 인수한 다대진 보유 국가소유 물품을 확인 · 점검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다대진 소속 관아官衙의 서책류書冊類 · 집물류什物類 · 관사官舍 · 곡류穀類 · 악기류樂器類 · 도량형기度量衡器 등 보유재산과 조총鳥銃 · 화약火藥 · 연환鉛丸 · 장전長箭 · 군복軍服 · 기旗 · 전립戰笠 · 전대戰帶 · 병선兵船 · 환도還刀 등 군수물자에 대한 수량 · 파손상태 · 현존여부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또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가격 · 대여상태 · 유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물품의 파손시기, 관사官舍의 신건新建 · 개수改修 · 중수重修 시기, 목木 · 전錢의 출납사항 등도 기록되어 있어 자료 작성 당시 다대진의 재산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다.

A document composed by Bak Gi-jong to check and inspect the list of items owned by the state and stored in Dadaejin Garrison. The list was submitted to Bak in the 7th lunar month of the 30th year of King Gojong's rule (1893) upon taking over his post as the garrison's commander in charge, from his predecessor Min Geon-ho. The well-preserved document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the garrison's assets at th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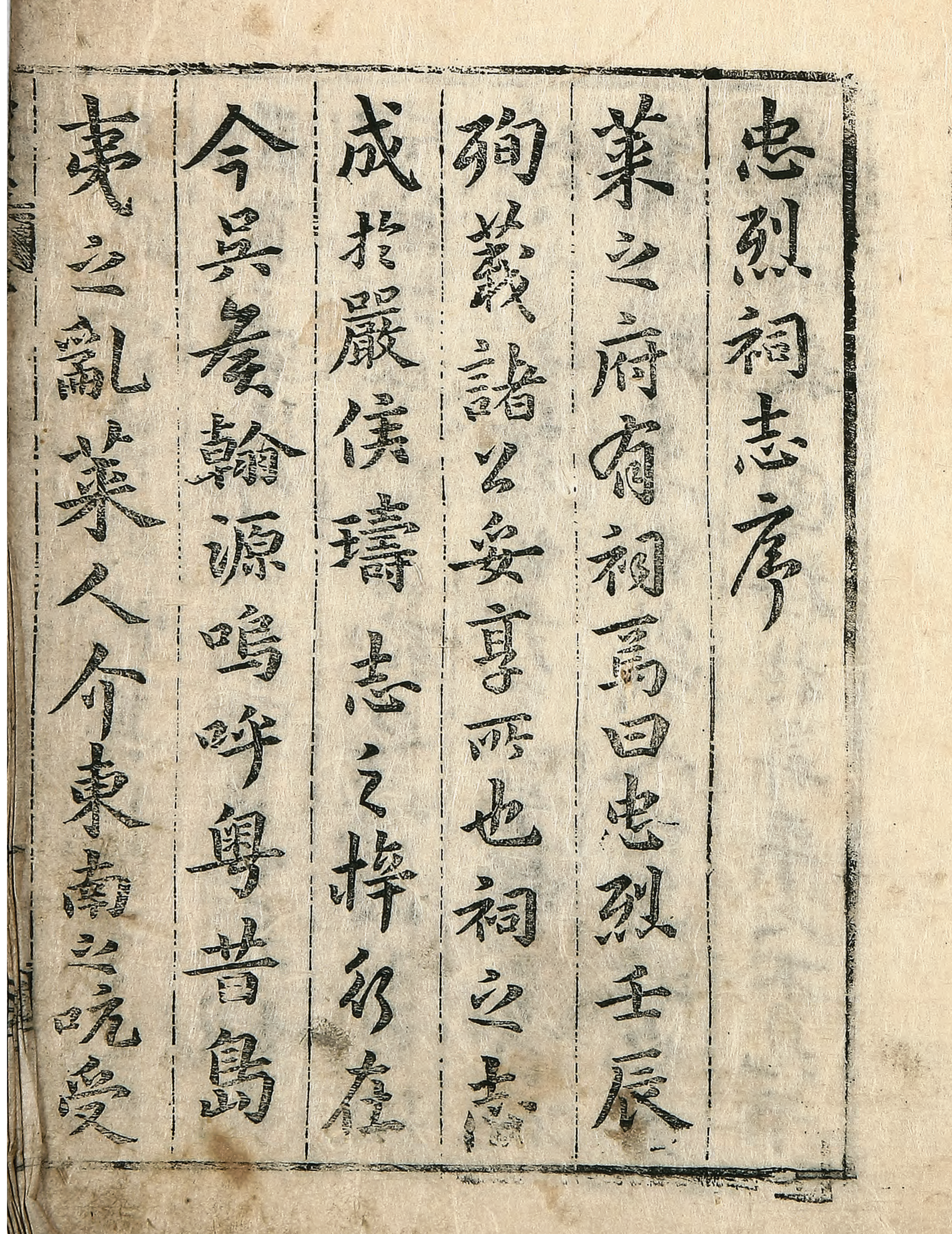
124

충렬사지
忠烈祠志
Records of the History of Chungnyeolsa Shrine

조선 19세기 | 세로 34.0 가로 24.0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34.0 W 24.0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에 배향한 제공諸公의 본말本末, 사당의 분사分祀 · 합사合祀, 단사壇祀의 시말始末 등을 기록한 책이다. 전 2권이며 목판본木版本이다. 본래 이 책은 동래부사東萊府使 엄린嚴璘이 1767년영조 43 윤 7월에 충렬사에 대한 기록과 전문傳聞을 수집하여 엮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간開刊되지 못하였으며, 약 40여 년 후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 재임 시1806~1809에 간행되었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부산진첨사釜山鎭僉使 정발鄭撥, 다대진첨사多大鎭僉使 윤흥신尹興信, 양산군수梁山郡守 조영규趙英圭, 동래교수東萊教授 노개방盧蓋邦의 유사遺事, 시향록始享錄, 분향록分享錄, 합향록合享錄, 송공단시말宋公壇始末, 정공단鄭公壇, 윤공단尹公壇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만호萬戶 정운鄭運 사적事蹟이 추록되어 있다. 또 만공萬公 만세덕萬世德 및 별전공신別典功臣의 사적도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A set of two books compiled by Governor Eom Rin of Dongnae-bu in the 7th lunar month, a leap month, in the 43rd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67) based on historical records of Chungnyeolsa Shrine and handed-down tales. At the time, however, Eom Rin was unable to publish the compilation, which was only first published around forty years later, by O Han-won (1806 - 1809) during his second term as Governor of Dongnae-bu.


忠烈祠志序
萊之府有祠焉曰忠烈壬辰
殉義諸公妥享所也祠之志
成於嚴侯璘志之梓則在
今吳侯翰源嗚呼粤昔島
夷之亂萊人介東南之吭受